

# 외국인근로자 ‘저임금 현실’ 10명 중 6명 월300만원 미만

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결과 국내 체류외국인 169만명으로 증가 취업자 65.5%, 제조업 비중 44.9% 월 200만~300만원 구간이 절반 이직 희망 사유 낮은 임금이 최대 경제적 어려움 병행비 부담이 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60% 이상은 월평균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적은 보수’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8.4% 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남자 비중이 57.9%, 여자는 42.1%였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30.9%), 30대(27.5%), 40대(15.7%), 60세 이상(13.3%), 50대(12.6%)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제조업(44.9%),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4%), 건설업(9.6%)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이 50.2%로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 원 이상’은 36.9%였다. ‘100만~200만원’은 9.0%, ‘100만 원 미만’은 3.8%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를 상대로 전반적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 수확 현장실습 중인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 /뉴시스

인 직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68.7%, ‘보통’은 28.7%, ‘불만족’은 2.5%를 차지했다.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60.5%,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62.4%,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68.2%였다.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0.8%였다. 이직희망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가 22.0%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이 낮아서’라는 응답은 전문인력(47.8%)과 재외동포(38.2%) 등 모든 체류 자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12.9%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22.0%)이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15.8%),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어려움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함’(36.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함’(29.4%),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41만명)와 비전문취업(32만1000명) 비중이 컸다. 이어 유학생(23만6000명), 영주(16만3000명), 결혼이민(12만8000명), 전문인력(8만2000명), 방문취업(7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문인력은 전년보다 25.3% 증가했지만 방문취업은 11.7%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계중국(29.9%), 베트남(16.0%), 중국(8.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15.0→16.0%)의 비중은 높아졌지만 한국계중국(31.6→29.9%)과 중국(8.6→8.1%)은 낮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농식품부, K-푸드+ 수출전략 점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K-푸드

+’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K-푸드+는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진출기업 애로 사항의 선제적 해결’ 등을 당부·주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협력 강화

교섭 지원·불공정 거래 동시 점검

이러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력 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평가 예방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 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aT, 美서 K-푸드 3200만달러 수출상담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4개 K-푸드 기업 참가 지원 3일간 상담 270건·3200만달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총 270건, 3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6일 사흘간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14개 우수 K-푸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는 스낵, 음료, 면류, 소스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 시식과 함께 유자, 배, 수정과 등으로 만든 슬러시 음료 시음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한국관을 방문한 한 현지 바이어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K-푸드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한인 교포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넘어 북미 주류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설치된 한국관. /aT

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식품, 소스, 스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한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500개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했

다. 매년 6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유기농, 자연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미서부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FBI)에 따르면 미국 식품서비스 시장은 2024년 1조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북미 시장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금액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자류(2억6357만 달러), 라면(2억5474만 달러), 쌀가공식품(1억 4902만 달러), 소스류(9213만 달러), 음료(9104만 달러)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K-푸드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험 중심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 서울 개최

폴리텍대, 서울 은하갤러리서 전시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이 그린 미래와 꿈을 담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제 학생 미술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이란·독일 3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One World, A Thousand Dreams)’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은하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5월 독일 뮌헨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전시에는 폴리텍대학이 개최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19점도 함께 전시된다. ‘우주에서 피어나는 미래’, ‘세상을 앞서가는 코딩기술자’, ‘시간여행을 하는 역사학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본 미래와 꿈, 일상을 담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 나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표현한 감정과 상상력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